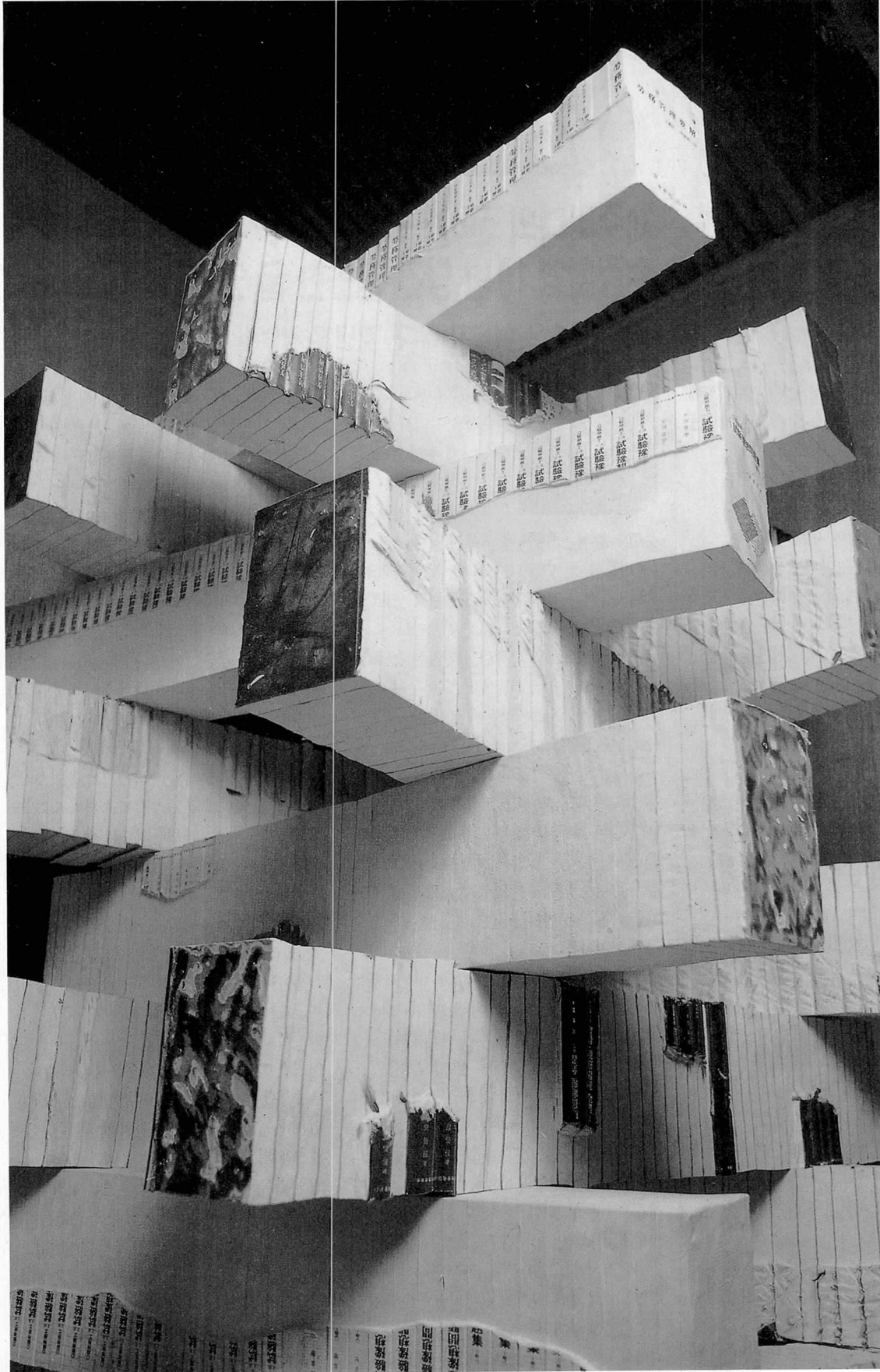


‘책이 아닌 책’의 무한한 상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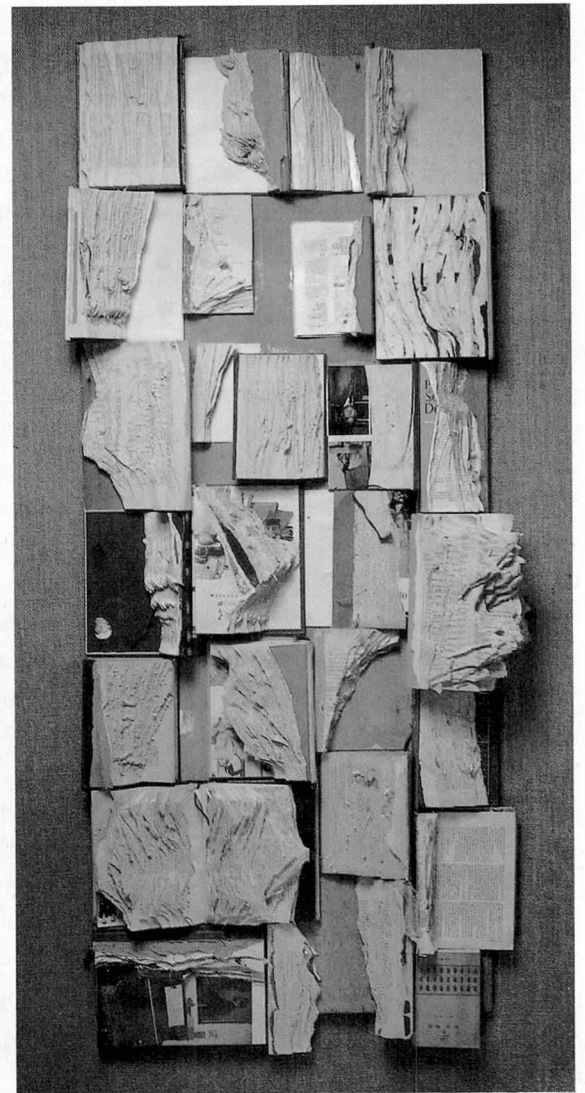
책을 주제로 한 ‘李洪洙 조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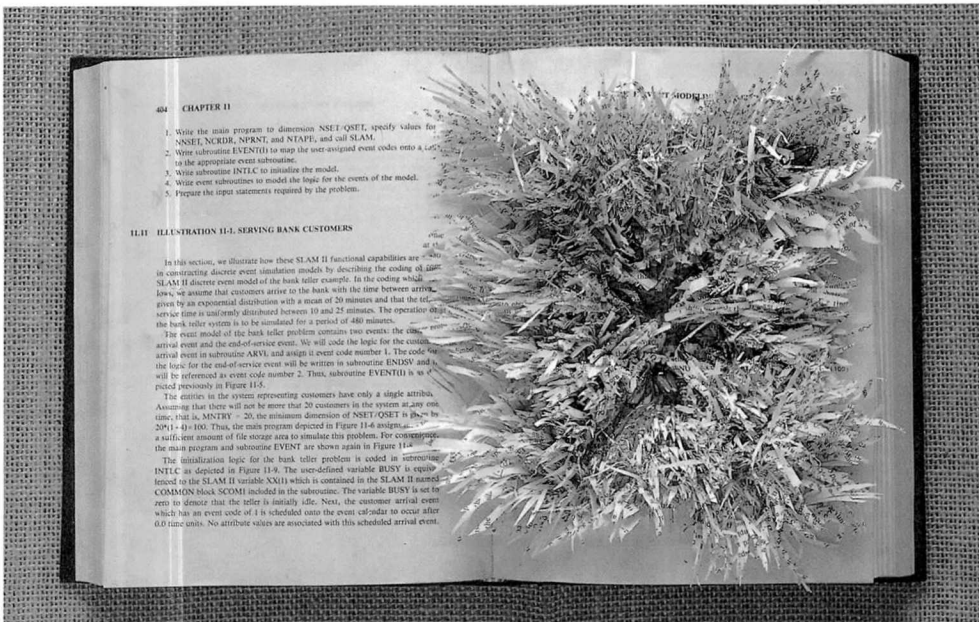
또다른 책쌓기

책을 주제로 한 ‘李洪洙조각전’이 금호미술관(종로구 관훈동)에서 2월7일부터 일주일간 열리고 있다. 현대추상조각의 영역에 다양한 상상력을 편입시켜 주목받아온 작가 李洪洙(36)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사물로서의 책에 구멍뚫기와 찢기, 파내기 등의 집적과 파괴·해체작업을 통해 작품을 ‘조각’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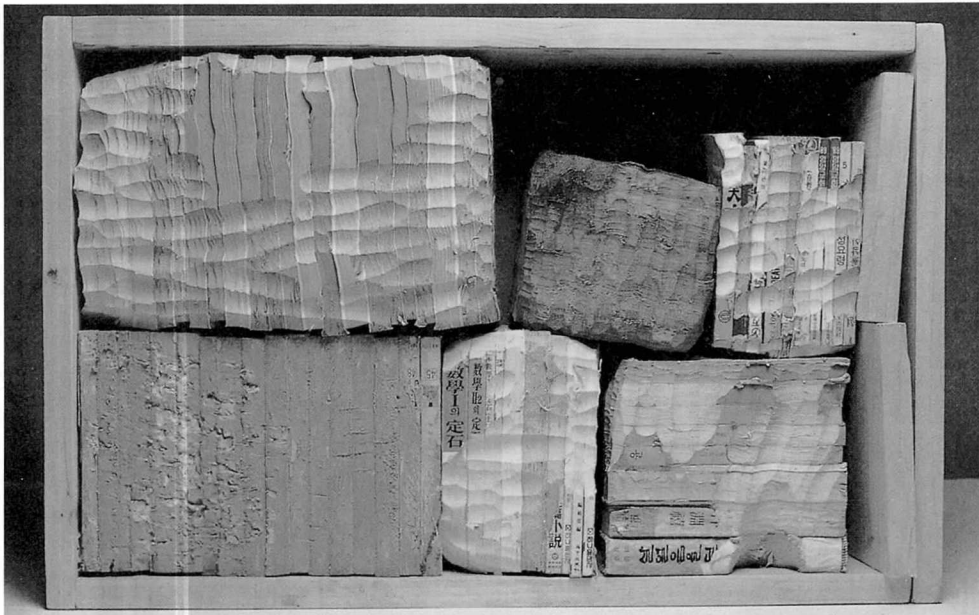
미술평론가 윤진섭씨는 “다양한 연모를 사용하여 책의 육질을 드러냄으로써 재료가 지닌 본래의 텍스트성을 無化시킴과 동시에 고전적 의미에서 조각 본연의 노동가치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평하고 있다. 완성된 오브제들은 책의 개념에 또다른 영역의 ‘독해 가능성’을 제시한다. 독자들은 이 전시회를 통해 ‘책이 아닌 책’으로부터 무한한 책읽기의 경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찢은 책



부드러운 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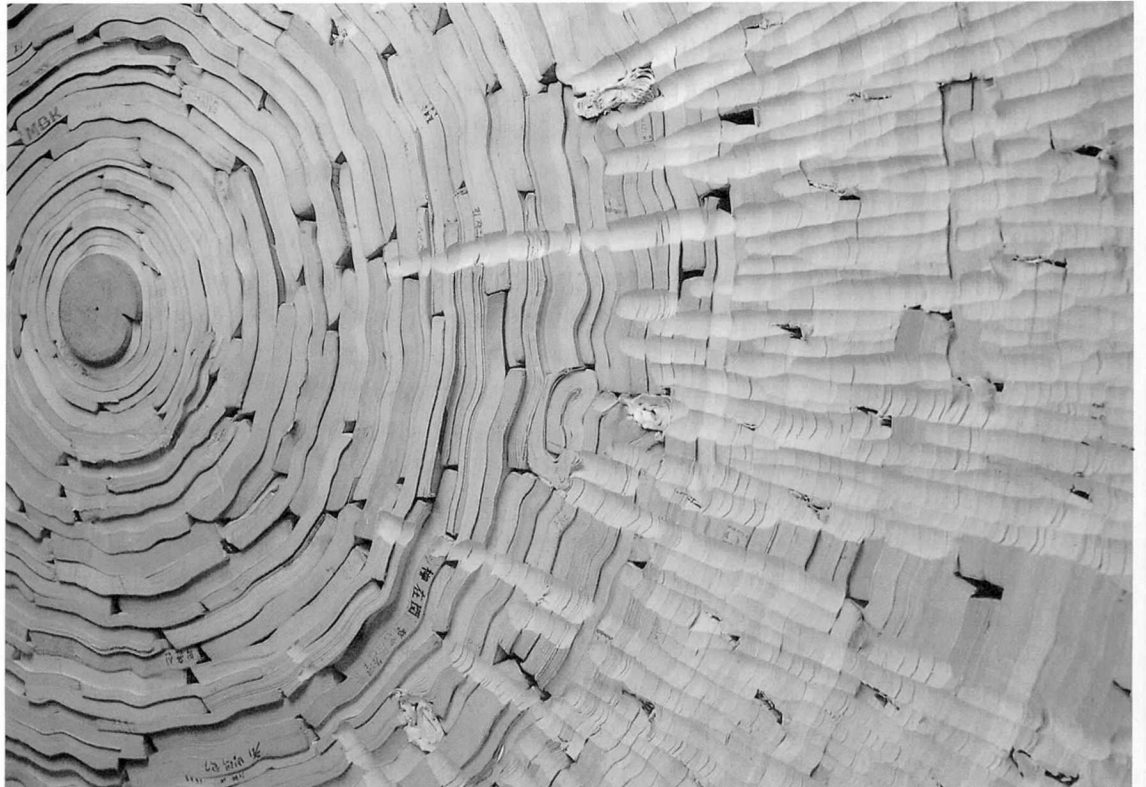


나의 책꽂이

또다른 책쌓기



화석



다함도 다됨도 없다